

- 1、教会에 革新을
- 2、社会에 變革을
- 3、世界에 所望을

모국교회

8월 15일 주일을 해방기념 주일로

재일한국기독교교회관건설위해

영락교회에서 500만원 목표로 헌금키로
각교파 총회 노회 산하 교회들도

재일 대한기독교교회 총회에서는 선교 60주년을 4년 전에 축하하여 기념식전을 성대히 거행한 바 있거니와 선교 7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사업등을 추진하는 한편 재일 교포 61만명중 거의 30만이 살고있는 판서지방 특히 大阪市에는 20만명이 살고 있으며 특별히 大阪市生野区에는 10만명이 집중거주하고 있는 바 이곳에다가 재일 한국기독교 회관을 건설하여 복음전도의 기지로 삼으려고 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하기 위하여 1억 2천만원 예산으로 재일 한국기독교 회관을 건설 추진 중에 있는 바 지난 4월30일부터 재일 대한기독교교회총회장인 김덕성목사 선교 10개년 계획위원장 오윤태목사와 판서지방회장 정인수목사 서남지방회장 홍영기목사 4명이 본국을 방문하여 약 1개월간에 걸쳐 한국의 중요도시에서 있는

각교회를 순회방방하여 호소환바 대한 예수교장노회 총회(합동) 측에서 약 200만원에 달하는 모금이 되었고 또한 서울영락교회 환경직목사님을 비롯하여 당회원들의 상당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금년 8월15일 주일을 해방기념주일로 정하여 재일 교포 61만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는 동시에 500만원 목표로 재일 한국기독교 회관을 위하여 헌금키로 작정하였다고 하며 이에 호응하여 장노회 통합측 각노회 경기 서울 각노회 그리고 경북 경동 부산노회들이 이날에 헌금하도록 추진중에 있다고 하며 대한기리회 윤창덕감독도 감리회 산하 각 지방대회에 시달하여 헌금하도록 하였으며 한국기독교장노회에서 경기도회를 비롯하여 경북노회에서 기타 여러 노회에서 헌금키로 되었다고 한다.

대화를 나눴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전도자세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되었다. 복음이 정말 우리 지역에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총련계인들과의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것 우리 스스로의 전도에 대한 힘이 약한것 교회가 지역사회개발과 발전 또는 동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다. 각 교회나 각 지방에서 축조전도가 실시 되기를 요망된다. 또한 30일 저녁은 특별전도집회를 김호식목사를 강사로 집회를 가졌고 315명이 참가 하여 모두가 감동과 은혜를 받아 무사히 마쳤다.

문서위원회 개최

전국가정문서선교회

이창식 총무 맞아

총회문서전도 전반을 맡아문서활동에 힘쓰는 총회 문서위원회(위원장 정인수목사)는 금번 한국전국가정문서선교회총무 이창식씨를 맞이하여 연석위원회를 지난월일에 KCC회관의실에서 거행하였다한다.

3년전부터 일본지사를 두는 것을 하고 있는 COMMUNITY ORGANIZATIONとは、理事會を組織したり、社会事業を実施したり、救済事業、指動活動、教育、福祉、労働者、学生、青年、婦人の諸活動をすると言うような、誰でもやっている。又、当然やらねばならない、自分の責任として当然やるべきことをやっていると言うようなものを言うのではなくて、住民全部が、組織をつくり、基本人權の獲得のため

총식목사를 지부장으로 임명하여 충분히 문서선교의 기술과 이념을 훈련시켰다. 재일 대한기독교교회총회는 문서선교회일본지사를 환영하여 직접적인 유대를 가지게 되어 그 모든 사업을 문서위원회에 일임했던 것이다. 현재는 「화해」를 발간하는것과 몇가지 문서지를 각교회에 배부하는일 또는 문서선교활동으로 각 교회중심으로 축조전도를 실시하고 있는중 금번 大阪市生野区에 축조전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판별기사는 따로 기재함) 이창식총무가 본국에서 후원하려는 것이다.

1. 복음신문본국지사와 본국 후원회를 조직할 것을 적극추진시키기로하다.
2. 가정문서선교회본부의 의향을 따라 최총식목사를 지부장으로 계속 시무하도록하다.
3. 가정문서선교회일본지부사무실을 KCC회관안에 두기로하고 정식 교섭하기로하다.
4. 문서주일을 9월5일 주일로 정하고 각교회에 통지와 요청을 하기로하다.
5. 복음신문재정 적자에 대하여 우선 문서위원 각자가 2만원씩 책임지고 모금하기로하다.
6. 복음신문에 각교회 뉴우스를 내기로하고 복음신문발간에 적극 협력과 후원을 요청하기로하다.

이창과 같이 토의결정하였다는데 총회기관지인 복음신문에 대하여 총회원전체의 보다 더 깊은 이해와 협력을 구하여 총회의 위임을 맡은 문서위원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감당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기를 바란다한다.

문서 위원

위원장·정인수 서기·전영복 위원·김원치, 최총식, 이창우, 안도선,

神戸教会 장로장립

장상재장로안수식

神戸교회는 세례교인7명으로 형성된 판서지방안에 유력한 교회로서 김정환목



이창식총무와 다나카총무

사가 부임한지 2년넘어 한윤주장로와 두분으로서 당회를 조직해온 교회인베근래에 와서 교회내단결이 굳어지고 앞으로 새 예배당건축의 크나큰 계획도 가지고 전진해가는 발전도상에 오른교회다. 금번 총회장으로 시취에 합격한 장상재집사를 장로로 장립하는 장로안수예식을 지난 6월13일 주일 오후 3시부터 성대히 거행하였다한다.

장상재장로는 45세의 가장 젊은 장로서 출생지는 본국이지마는 소학교부터 고등학교(目黒高等無線学校) 졸업까지 일본의 교육을 받고 자라난二世교인이다. 二世로서 장로된분으로는 처음 된일이라 할 수 있고 소년시대부터 사회에서 불양속에 젊은이 생활을 경험한 그는 인간의 고락을 몸소 맛본 인생경험에서 22세청년시 神戸교회에서 입신한 후 불신의 가정에서와 불신의 사회생활속에서 성격 그대로 믿음하나로서 폭진해온 신앙의 용사이다. 집사로 1년 교회를 맡들어 오면서 베드로와 같은 성격으로 힘있게 봉사하여왔다. 특히 청년운동에 몰입양면으로 희생적봉사를 해온 그의 공적은 누구나 그를 아는 이마다. 칭찬과 경모를 아끼지 않는다한다. 지방회장정인수목사의 서약사식을 증심하여 당회장김경관목사의 사회하 교육부장 홍동근목사의 설교와 총회장김덕성목사의 권면등 총회전체가 들어 거행하듯한 장로장립식으로서 더욱神戸교회를 빛나게 하였다한다.

대 축조전도 실시

판서지방회에서 KCC중심으로

지난 5월28일부터30일까지 KCC를 중심으로 해서 판서지방회전도부(전영복목사) 주최로 각 기관이 협력 해서 오오사가 이구노에서 대 축조전도를 실시했다. 특히 가정문서선교회 이창식총무 일본 다나카총무등의 도움을 받아 우리 총회로서는 처음으로의 큰일이였다. 3일간 182명의 전도원이 각 교회에서 모여 전도지를 갖고 5,700지 가호를 방문하고 20명의 결심자를 얻었다. 총련계

라총교인정 산관원이, 총회에서의組つくり、ビョーク白人鉄網労働者組織、カンサス、デットロイド、パフアロー各地の黒人組織に、又、シカゴ、ウドロン地区(黒人街)の住民組織、WOODLAWN ORGANIZATIONの中心人物となつたのも、彼は白人でありながら、黒人待遇に最も露骨化している。基本人權の擁護を黒人運動の中に見たからであつた。講演の中でも、又食事の席

— 大阪教会創立五十周年 —

記念特別伝道集会

재일 대한기독교大阪교회에서는 교회가 창립된지 만 5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6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매일밤 특별전도집회를 가지었던 바 대성황리에 끝 마쳤다고한다. 금번 특별강사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이며 서울총현교회의 김창인(金昌仁)목사님이었는데 매일밤마다 특별한 은혜를 김창인목사님을 통하여 받았다고 하며 3일간에 48명의 새로운 사람이 출석하였다고한다.

大阪교회는 1921년6월에 김의생(金義生)이라는 방

직회사 여직공의 개인의 가정에서 예배보기 시작한 것이 처음이라고 하며 당시에 神戸에 유학생으로 와있던 김우현 전필순 신학생들을 통하여 전도에 박차를 가하였다고한다.

6월27일 오전11시 예배시에는 당회장 김덕성목사 사회하에 김창인목사의 설교가 있었다고 하며 유사한 장노가 大阪교회 약사를 낭독하였고 이어서 문창숙장로 근속 10주년기념 표창도 있었다고 하며 대성황리에 기념식전을 마쳤다고한다.

지하에서 수백년간 예배하던 곳을 보아야 하겠다. 오늘 우리들은 너무호화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날때에 현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당을 감사할 것이며 좀더 정성을 드려서 예배를 볼 생각이 나게 될것이다.

지하굴에 길이가 17킬로이다. 들어가서 만일 길을 잃으면 나오기가 어려운 굴이다. 따라서 당시 연극장에서 맹수에게 순교를 당한 그 자리 신앙의 선배들이 흘린 유혈의 그 자리를 목도할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히 판단 할수가 없고 다만 묵묵히 서있을것 뿐이었다.

또는 빠지간 정부안에 우뚝히 서있는 베드로의 성당 그 정면앞에 순교당한 성베드로의 석상이 순교한 그 자리에 높이 서있다. 그를 쳐다 보고 굉장하고 어마한 성당을 볼때에 베드로의 순교의 영광은 과연 크고도 영광이란 것이 새삼스럽게 생각난다. 지금은 로마 시민 300만명인데 교회가 시내에만 400곳이 있다고 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이다.

비누를 만들만큼 기독교를 박해하였으나 지금은 전국민의 팔팔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자라고 하니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인간으로서는 감히 알 수가 없다.

다음 덴마크나라는 기독교가 국교이다. 수난주간 금요일은 관청과 학교 상점 회사 전 국민이 다 쉬고 있다. 이 나라는 거의 신교이다. 그의 유류는 구교가 대다수이다. 다음 볼란서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개인적으로는 자만심이 강하다. 특별히 이스라엘나라는 종교성(宗教省)이 있고 연간 외국인의 관광객이 70~100만명에 달하고 있다. 끝으로 하나님의 뜻이면 유류의 모든나

라는 장차 경제와 정치가 통일 될 가망성도 보인다.

韓国基督教會館 初代 運管理事長에 金 德 成 牧師 被選

한국기독교회관(KCC) 운영이사회가 지난 6월7일 오후6시에 大阪市生野区猪飼野東3-33에 있는 회관에 이사선출후 처음으로 운영이사회가 소집되어 초대 이사장에 현재 총회장인 김덕성목사를 선출하였으며 부이사장에 김창엽장노회계에 김덕수이사 부회계에 김경추이사등을 선출하였다고한다.

여전도회 8월 월례회를 위하여

영혼의양식

에레미야 45:1~5
로마 12:20, 21

하나님의 슬픔

한반도 삼천리 금수강산을 고국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본토에서나 먼이역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8월에는 잊지않고 광복절을 기념합니다. 그 마음들은 모두다. 통일 건국을 염원합니다. 이와 같이 25년간을 지켜오면서... 아직도 이루어지지않는 위기 가운데서 실망낙담하는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으로 새로운 반성과 각성을 일으켜 용기를 더하여 나가자 합니다.

에레미야서 4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하여 탄식하시고 슬퍼하신 비통의 기사를 생생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나라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 선지자 에레미야를 보좌하며 문서전도에

종사하던 바룩이 고통에 못이겨 실망한 나머지 그 일을 그만두고 나가서 달리 살아갈 방도를 꿈꾸고 있었읍니다. 다시말하면 자기의 이득을 위한 세속적인 야심이 바룩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를 통하여 여호와와의 말씀이 임하였읍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그만두라 창생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니 개인의 야심은 금물이다.」(렘 45:4,5 참조)라고 경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양단된 우리 국토안에는 다시금 6·25와 같은 참변이 일어나지나 않을가 하는 불안으로 외국에 나온 사람들은 들어가기로 꺼리고 본토에 있는 유력인사들은 많은 가난한 겨레들이야 어찌 되었던 나라의 장래를 이어갈 자손들이야 어떻게 자라든지 말든지 38선에서 국방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고 주야로 수고하는 나라의 젊은 이들의 공도와 아랑곳 없이 개인의 안전과 영탈을 위하여 도피성을 꿈꾸기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분망한지요. 8·15기념행사는 그들의 장식품으로 전락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현상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슬픔(4면에 계속)

예루살렘성지 순례기

平野教会 정인수 목사

나는 주님의 무덤안에 들어가 보았다. 두평쯤되는 돌무덤이었다. 승천하신 산은 바로 겟세마네동산 뒷봉이었다. 건너다보면 옛날이작을 제물로 드리던 모리아 산봉인데 지금은 그곳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성이 둘러있다. 이 성은 해발 300미터의 높은 곳이다. 솔로몬왕이 세운 성전도 그 성안에있다. 성의 주위는 4킬로이다. 허러진 성전벽에 수백명이 매일같이 주야로 모여서 메시야를 속히 보내주시오 하고 열심히 빌고 있는 유대교의 열심당의 교인들의 열심만은 우리도 배워야 하겠다.

지금 우리는 너무 태만한 신앙 생활이라는 부끄러운 생각이 나게된다.

②死海에 관한 하나님의 기적

사해는 길이가 50킬로 넓이 5킬로 水面은 地面보다 400미터낮고 水深은 4,000미터인데 塩分이 35%이다. 나는 갈때에 수영복을 준비하고 塩水를 넣을 준비하고 갔으므로 바다에 들어가니까 저절로 이 몸이 水面에 뜨게되고 절대로 물속에는 빠지지 않는다. 과연 바다속에는 소금덩이가 묻혀있다. 소금덩이를 집어서 냄새를 맡

으니 유황냄새가 많이나고 또는 근방에는 백사장이 수십리 거리인데 그 모래는 다 유황의 원료라고 한다. 이것을 실지로 목도할때에 성경에 쓰여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사 소돔과 고모라를 향락 시켜서 바다가 되게 하신 그대로 이었다.

③사도들의 전도 여행의 유적(遺蹟)

헬라국이 아메에 있는 우상에 전각은 과연 큰 것이었다. 이 전각의 유적을 볼때에 바울 사도의 용감함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력을 알 수가 있다.

오늘에 와서는 그 크디콘 우상의 전각은 다 허러지고 헬라국민의 삼분지일이 기독교 신자라고 한다. 아테스에서 약 100킬로를 가던 고린도가 있는데 그곳 역시 유명한 우상 아폴로의 신당의 유적이 있다. 여기서 바울은 담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여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놀랄일이다.

④로마에 기독교적유명한 유적(CATAKNBE)

기독교신자는 누구든지 예루살렘성지를 보는 동시에 로마에이 지하굴속에서 네로황제의 박해를 피하여

⑤영국 런던탑의 비참한 애사(哀史)

특히 왕실에서 일어난 유혈의 비참 이것은 다 형용할 수가 없으니 각자가 다른 책자에서 볼것이고 다만 인간의 죄악성을 여실히 깨달을 것인데 그 유적을 실지로 목도할때에 입으로 형용할 수가 없으니 주께서 공평스럽게 판단하실 것이다. 다음 대영국 박물관에 비치되어 있는 성서사전은 감탄할 일이다. 지면이 부족하여 설명은 약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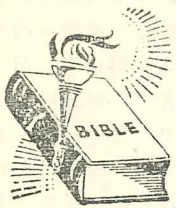
⑥기타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명이나 학살하고 그 잔해를 찌서 세탁하는



聖

1. マ
約聖書
われて
12:12)
ラダの
平凡な
父母は、
名をつ
アムと
ギリシ
リアム
人で有
ある。
に流さ
ろわれ
分の母
て、あ
生命を
2:5~9
イスラ
湖を渡
して民
え、彼
得られ
海に投
19~21
2. マ
の子供
って、
ってつ
が運悪
つかれ
対に治
つかれ
)。こ
たらさ
を耳に
とに来
らった
は多く
奉仕を
15:40)
く、主
どんな
った。1
心配な
リヤを
助によ
3. ベ
エスに
行った
告され
てこな
)。しか
ヤは、主
って行
十字架
コ 15:4
そして、
に埋め
ついて行
~61)。
体に香油



聖書

マ リ ヤ よ

ヨハネ 20:11~18

金 元 治

1. マリヤという名前は、新約聖書には七人の女性にわかわれている（ルカ 1:27, 行 12:12）。その中の一人でマグラダのマリヤがいる。彼女は平凡な一漁村の生れである。父母は、彼女にマリヤという名をつけた。このことはマリヤムというヘブル語の名前のギリシア訳である。旧約でマリヤムという名のついている人で有名なのはモーセの姉である。マリヤムはモーセが川に流されて行く時に王女にひろわれて乳母を探す時に、自分の母を紹介してモーセをして、あの大人物になるための生命を救った恩人である（出 2:5~9）。そして、モーセがイスラエルの民を引きいて紅湖を渡る時には、女予言者として民と共に「主に向かって歌え、彼は輝かしくも、勝ちを得られた、彼は馬と乗り手を海に投げ込まれた」（出 15:19~21）。

2. マグラダという田舎生れの子供にも大予言者にあやかって、そのようにと希望をもってつけた名前である。それが運悪くも七つの悪霊にとりつかれて、八方ふさがりの絶対に治らない不治の病にとりつかれたのである（ルカ 8:2）。このマリヤにも福音がもたらされた。主イエスの奇蹟を耳にして、このイエスのもとに来て悪霊を追い出してもらった。この時以来、マリヤは多くのマリヤと主に対する奉仕を献身的にした（マルコ 15:40）。そればかりではなく、主イエスのことであればどんな危険な所でも従って行った。12弟子たちが経済的な心配なしに奉仕出来たのもマリヤを始め、多くの女性の援助による（ルカ 8:3）。

3. ペテロら12弟子は、主イエスについてゲツセマネまで行ったが、主が十字架刑を宣告されてからは再び主に従ってこなかった（ヨハネ 18:27）。しかし、マグラダのマリヤは、主イエスが十字架を負って行く時（ルカ 23:27）十字架につけられた時（マルコ 15:40, ヨハネ 19:25~27）そして、十字架から死体が墓に埋められる時にもマリヤはついて行った（マタイ 27:59~61）。そして、マリヤは死体に香油をぬろうとしてイエ

スの墓を尋ねた。この主がもっとも苦しみ恥かしめられる時に弟子たちは逃げたが、マリヤはずっと従って行った、

そのことが復活の主が一番始めにあい「マリヤよ」と名ざして呼ばれる光栄を得た。（西成教会牧師）

犬であることをやめろ

—ソウル・アリンスキーを迎えて—

6月8日 ソウル・アリンスキーを迎え、同志社大学で講演を聞き、数人で夕食を共にした。今世界で、真の自由人として、住民活動の闘士として、最も有名な活動家である。彼は1909年生れだから、今年62才である。若い夫人と同伴、来日された、その容貌と言ひ、態度と言ひ意気盛んなること青年を凌ぐものがある。

シカゴで、移民ユダヤ人洋服屋の息子として生れ、大学で刑法を学び、1930年代の米国の不況の中で、シカゴのスラム街、屠殺場の裏に住民組織をつくり、あらゆる社会活動と異った、人間基本人権の主唱を目指しての社会運動を始めた、1940年になって、カトリックのシェイル司祭とマーシャルフィールド氏の出資を受けて、財団法人産業地域組織本部 INDUSTRIAL AREA FOUNDATION を起して一躍有名になった。彼が労働組合と袂を分ったのも、その目指すところ、単に労働条件の闘争だけでなく、基本人権を目指しているところより、住民活動の姿を取るに至ったのである。カリフォルニア移住農民組織の形成に、カナダインデアン組織、ローチェスターの組合づくり、ピッツバーグ白人鉄鋼労働者組織、カンサス、デットロイド、バッファロー各地の黒人組織に、又、シカゴ、ウドロン地区（黒人街）の住民組織、WOODLAWN ORGANIZATION の中心人物となったのも、彼は白人でありながら、黒人待遇に最も露骨化している。基本人権の擁護を黒人運動の中に見たからであった。

講演の中でも、又食事の席

でも、彼が我々に強く訴えたのは「犬であることを止めろ」であった。犬は首に鑑札をぶら下げている。在日韓国人は外国人登録をぶら下げなければ道も歩けない、住民が住民登録票を持たねば歩けない国は、アフリカの後進国家でさえもない、日本だけの出来事である。日本に向って、何故、外国人登録票を投げつけられないのか、私は東京でも言った。60万の外国人登録票を日比谷公園で焼き捨てよ、恨らく、60万を逮捕出来まい、少数でも日本の官憲が、韓国人を逮捕したら、新聞沙汰になり、日本人も、世界人も、犬となっている在日韓国人を知るようになる。そこで世界的な運動が起るのだ。日本を悔い改めさせるのは、在日韓国人の強い反抗から起るのだ。犬であることを止めて、人間になるため、基本的人権を守る運動を起しなさい。KCCは、プランを建てる組織でもない。理念を教える学校でもない。小さな社会事業をやる機関でもない。そんなものなら、自分でやればよい。又、やるのが当り前だ。会館を建てるのもよい、誰でも建てているのだ、自分で建てたら良い。世界に訴えるKCCは、住民組織の活動をしているからであって、COMMUNITY ORGANIZATIONとは、理事会を組織したり、社会事業を実施したり、救済事業、指助活動、教育、福祉、労働者、学生、青年、婦人の諸活動をすると言うような、誰でもやっている。又、当然やらねばならない、自分の責任として当然やるべきことをやっていると言うようなものを言うのではなくて、住民全部が、組織をつくり、基本人権の獲得のた

め、あらゆる問題を取り上げて、ぶち当たって行く行動である。先づ、住民（地域、全国的）の組織をつくらねばならない。それがCOMMUNITY ORGANIZATIONである。在日60万の組織である。民団とか、朝総連とか言う団体でなく、一つの目的のための組織である。犬であることを止めて、人間として堂々と生きて行くと言う目的のための組織である。そして組織は行動を起すのである。世界中何の国よりも、最も悪い、非人道的な非人間待遇の国である日本に在って、住民として、非人間的待遇を受けているものとしての組織と活動を起すKCCならば、世界はこれを助け、共に物心両面の共同活動

を起すであろう。それでなく、只一つの社会参与とか、社会事業程度のものならば、大いにやるべし。然し自力で当然やるべきであって、世界に訴える何ものもないことを知らねばならない。これがアリンスキーの言い分であり、この考えから見たKCCを、アリンスキーは、世界の斯界に発言するであろう。KCCが今後、世界に訴える場合、アリンスキーの発言が強い影響力のあることを思うとき、現在のKCC理念と、余りにも距りの遠いことを痛感させられる。こう言う意味に於て、KCCは少くともCOMMUNITY ORGANIZATIONで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感じせしめられた。（田永福）

斗争の神学 — 8 —

岐阜教会 牧師

金 承 俊

我々は、人間というものが、自己に対していかに甘い、嫌悪を感じる程である。

勇気を持って、バツサリと切ってしまう意志のない所に、何の進展もありえず、悪臭を放つだけである。

所が、実際には、何でもバツサリとやれない所に、人間としての共同の悩み、苦しみがあるのである。人間とは、実に複雑で、怪奇な程、あらゆる面、相が、絡み合っているのであって、自分だけが他をバツサリと切って、安全かというところではなく、自らも傷つくように出来ている。

それだから、他人をバツサリやってしまうよりも、自分をバツサリと切ってしまうえば、影響も大きくなる。そういう意味では、自己矛盾的な存在なのである。それでいて、絶えず、後か、前かのどちらかに向かって、闘いつつ、動いている存在である。そして、今のこの瞬間だけが、永遠の現在として、永遠の今に、触れ、そして、生きているのである。

永遠の今に触れつつ、反対勢力（聖書は悪魔という）と闘争し、勝利して行くことが、聖書の教える深い意味である。イエス自身の生活がそれを示している。罪、サタン、律法の拘束等との格闘思想なしに、旧約も新約も骨抜きになってしまう。

この世に在る限り、人は罪、汚れ、弱さから、完全に解かれるのではない故に、キリストを仰ぎつつ、御言の前

で、自己と闘い、己を十字架につけるまで、へり下りつつ、祈りを通して、永遠の今に連ることである。

それでも、ダビテやペテロのような大失策を犯さないと限らないから、絶えず、罪や誘惑に陥らないように、目を覚まして警戒しなければならぬ。それらのことは、神の言によって、霊と共に、傲慢な、自分という意識を完全に、こなごなに打ち砕き、全く変えることによって為しうる。どんな段階に達しようとも、自己というものが残る限り、同じものであるに過ぎない。

自己が本当に、根底から変革されうるのは聖霊と共に働く神の言によって以外にない。その神なる言が働き、それと共に、この地上で、内的、外的、信仰的な闘争を展開すること、しかも、永遠の祝福を信じ、希待して生きること、これが人間の最高の姿として示されている。キリストを通して永遠の今に触れつつ、闘争し、キリストを通して闘争しつつ、永遠の今に生きる事、ここから、聖書的、革命的実践に生きるよう押しやられる。

(つづく)



복 음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堺 教 会 牧 師 尹 宗 銀

복음신문 제258호에 까지 계속하여 《복음—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연재한 바 있었거니와 이번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고려해 보려고 한다.

교회는 본질상 세계에 대하여 선교적 사명을 지니고 있다.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수립되기 위하여 예수·그리스도의 강행으로 시작되었고 그나라가 완성해지기 위하여 영광중에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까지의 그어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활동에 우리의 참여를 의미한다.

“이 우리에게 들지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목자께 있으리라” (요 10:16) 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그리스도가 원하신일을 지금우리도 그와함께 원하고 있다.

Margull박사가 말한 바와같이 “교회는 많은 백성중에서 불러냄을 받아 하나님의 선교를 만민에게 증거하며 그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선교가 참된 선교가 되는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여 쓸 때뿐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란 무엇이뇨? 이질문에 대한 대답은 말로 설명하기에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오해를 가져오는 수가 많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

서서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이 저로 믿게 하고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다” (요 3:16, 참조).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아버지의 가족안에 가입하며 우리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에게 인도받기 위하여 성령께서 보냄을 받았다. 삼위일체 교리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선교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내려오셨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선교사역을 구체화했으며 그리스도는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것으로 그 선교사역이 믿는자에게 까지 확장되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 28:19).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증인이 되리라” (행 1:8).

이와같이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안에 시발점을 가지고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형태와 근원을 발견할 수 있다.

A) 선교의 온전한 형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의 선교는 그리스도의 선교로 말미암아 이루어 지고있다.

B) 선교의 계속되고 있는 자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 불찌어다 내가 세상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18,20). 만약 교회가 그

자신의 선교라 하지않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교활동은 좌절되고 말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구조안에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수안에 가지고 있는 이마음을 너희안에 가지라” 빌 2:5).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하여 일하고

계시는 목표가 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것이니 하늘에 있는것이냐 땅에 있는것이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하심이라” 엡 1:9~10). 선교의 형태와 목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 되고 있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계속)

때입니다. 고무고작에서 부족함이 없는 생활에서도 이 지구상의 화려한 어디에서도 찾을수 없으나 하나님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참 평안을 찾아 누리면서 그 생활을 널리 증거할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안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사는 신앙생활은 전쟁터에서도 가난과 고생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평안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 오는 것이 무서운 것이아니오. 우리에게서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몇일전에 나는 일본인 소설가의 소년시절에 고생하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16세때 중학교를 못가고 탄광에서 노동을 하면서 일제탄압 가운데 한국민의 당하는 고생을 보고 이 땅에 차별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탄광에서 일터를 판곳으로 배치시킬 때마다 일하기 좋은 곳은 일본인에게 일하기 어렵고 나쁜곳은 다 한국인부들을 보내며 가진 학대를 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와 같은 연배의 한국소년 등 몇명이 그래도 앞으로 공부할 희망을 잃지 않고 상급학교에 갈 검정시험준비를 하였답니다. 그때 그들은 독학생이라는 자각으로 한국인소년이 자기방에 “독”(獨)자 하나를 써붙이고 노력하였는데 일본순자가 그것을 독립운동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잡아 가두어 갖은 고생을 다 겪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한국여인의 매춘위패전행후의 이야기등을 다 듣는중 내 마음속에는 일본제국주의의 학정에 대한 증오에 앞서 우리 겨레들이 고난을 값있게 당하지 못하고 모든 악에게 저버린 생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서 나는 두가지를 온 겨레들과 함께 굳게 다짐하녀 기도하옵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과 같이 당하면서 아무리 큰 손해가 와도 죽음앞에서도 어그러지는 일을 하지않을 것과 둘째는 모든 악을 선으로 이길 일입니다. (총무이영숙)

(지면관계로 기사를 모두 실리지 못했습니다)

관 서 지 방 신 도 회

회장으로 민 중 삼 장로

관서지방신도회에서는 지난 5월23일 KCC에서 제8회 신도총회가 열렸다. 70년대의 사는 신도—우리의 사회참여—의 주제로 일년간 활동을 한 경과와 보고를 김중태총무 사회회에서 듣고 다음과 같은 임원을 선출 했다.

▶회장 민중삼 ▶부회장 양건목 ▶서기 강화익 김길웅 ▶회계 김향모 이정남 ▶연구부장 이정남 ▶전도부장 한운주 ▶직업부장 양건목 ▶재정장 이소용 ▶총무 김중태

折尾교회에

두 장로 장립

교회가 설립된지 25년 가까이 되어 오는 折尾교회는 제작년에 김형식목사를 맞이하여 안으로 아주 일신된 교회다. 지금까지 당회를 조직하지 못하여 오다가 이제는 세례교인이 3 여명이 되어 이룩된 것으로 금번 총회장으로 시취에 합격된 오우상문봉석 두 집사의 장로안수식을 지난 5월3 일에 지방회주최로 은혜중 거행하였다고한다.

折尾교회는 젊은 교회의 기백을 그대로 나타내는 교회인데 교회내 교인들은 연장자가 많고 금번 장로 된 두 분도 노경에 드신 분이 지마는 성경 그대로 속사람은 나날이 젊어져 가는 귀한 일꾼들이다. 젊은 소장중견의 김형식목사와 연배자인 두 장로가 젊은 교회를 젊은 세대를 향하여 날개치는 그 모습은 재일 대한기독교회가 60년선교 역사를 지니고 나가면서 언제나 그 시대에 살 교회로서 역사를 담

당하고 선교교회의 본질을 갖추어 나간다는 교회본질을 그대로 보여 주는 듯하여 한없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한다.

下 関 教 会

김 도 식 장로 장립

下関교회는 흥영기목사가 지방적으로 유력한 자리잡은 목회를 해온 교회인데바세례교인 6 명에 이 선조 최성팔 두 장로로서 당회가 구성 되어 있었는데오래동안 집사로서 충실히 교회를 받들려온 김도식집사가 총회장으로 시취에 합격 되어 지난 5월23일 장로장립식을 거행하였다고한다.

下関교회는 일본에 현재 건설 되어 있는 교회중 가장 오래된 역사 깊은 교회인데 새로 장립된 김도식장로를 맞이하여 더 일층 무게 있는 교회의 용모를 갖추 일본의 현판인 하판에 있어서 한국인교회를 더욱 빛나게 하리라 하고 다방면에 기대가 큰 것이다.

(2면부터 계속)

이 전하여 통곡 하십니다. 하나님앞에서 한국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한국사회가 고민하면 우리도 그 고민을 안고가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으면 우리도 숨가쁜 위기를 당면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도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은 한국의 현실을 도피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현실을 외면하려는 한국백성은 이미 죽은 한국사람입니다. 한국인 크리스찬으로서 이제야 말로 한국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심어 주는 일에 힘을 다 할

夏期 全国 修養会 案内

第19回 教会青年会

<主题> 差別社会の中でいかに生きるか

主牧 孟哲輝牧師(船橋教会)

日時 8月3日(火)~6日(金)

場所 恵那狭(岐阜県)

「雀のお宿」キリスト

教会館

(電話05732-5-2325)

費用:会費3,500 申込金500

高等部 夏期学校

<主题> イエスと私

主牧 黄義生(名古屋教会)

日時 1971年8月3~6日

場所 恵那狭

鷹見旅館

費用:会費3,000円

申込金500円

電話 05736-5-4643